

# 협동조합의 본질과 역할



권 원 달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교수

## 1. 인간생활과 협동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자의 사람(人)자는 서로 의지하여 버티고 서있는 것이다. 절해고도의 생활을 해왔던 “로빈슨 크루소”도 결국은 독자적인 자기생활로 마무리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 기능과 역할면에서 보완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전지전능한 신의 존재에 비하면 인간은 지극히 초라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기능적으로 역할분담을 통해 인간생활이 윤택해지고 희망적이며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협동(協同)이란 말은 힘을 합한다는 뜻으로 이것은 곧 마음을 합한다는 말이며 결국 함께 일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사회적 행동을 해야하고 사회행동은 기본적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즉 그 유형은 사회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협력함으로써 욕구를 만족시키는 “협력”과 사회의 구성원이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거나 공격하는 “대립”과 그리고 사회생활속에서 욕구의 만족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사회생활의 현장에서 “도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인 협력, 대립, 도피는 다양한 상태에서 적절히 발휘되고 이용하면서 살아가겠지만 그 중에서 협력은 가장 본질적인 사회생활의 규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협력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여럿이 힘을 모아 보다 능률적으로 쉽게 해낸다는 뜻이다.

산업심리학에서 말하는 「시너지 이펙트」(Synergy Effect)란 말은 두사람의 힘을 모으면 두사람 이상의 힘을 낸다는 뜻으로 오늘날 고도산업사회에서 이 원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협력의 형태는 단순한 형태에서 조력, 분업에 이르기까지 인간생활을 효율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 행동으로서 인간의 협동은 협동에 참가하는 자기의식과 협동체의 기능을 기준으로 보면 반사적 협동, 본능적 협동, 생존을 위한 협동, 경쟁에 이기기 위한 협동, 남을 위한 협동으로 그 단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오늘날 고도산업사회에서는 그 필요에 따라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의 협동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원천은 인간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은 외적인 보수를 예기하거나 기대함이 없이 타인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행동하려는 마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누군가 덕을 보면 반드시 그만큼 어디선가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현대사회의 구조하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의 원천은 메달라 가지만 복잡한 현대사회생활을 남과 더불어 함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가능성은 무한한 것이다.

## 2. 협동조합의 본질과 성격

정의적으로 표현하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 소생산자, 농민이 자본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연발생적인 조직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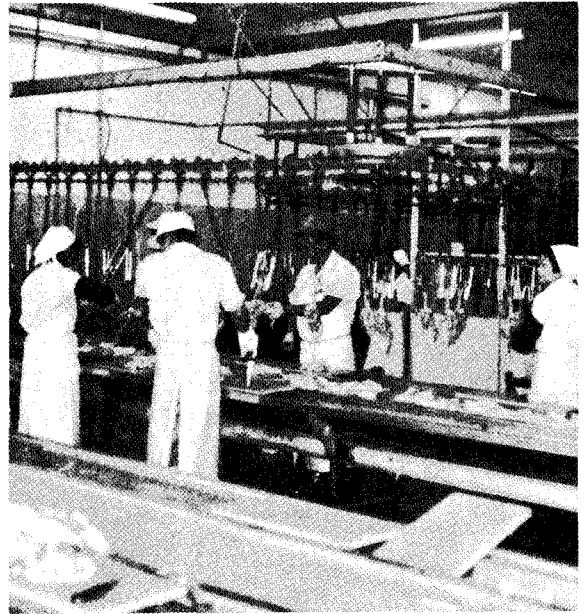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발생은 자본주의 사회의 소산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회에서 자본의 피해를 보는 계층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그리고 그 발생은 어디까지나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보호받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으나 나아가서 사회개량적 내지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큰 뜻이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본질과 성격면에서 다른 조직에 비해 특이한 것이다.

### 1) 협동조합의 본질

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그 발생과정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빈약자의 단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빈약자의 단체가 아니라 경제적 강자의 단체라면 이것은 동업조합이거나 유사한 단체로서 본질적으로 협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자본주의적인 경제자로서 소생산자, 소비자,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자기방어를 하는 수단으로 발생시킨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운영의 원리가 필요액 충족원리, 사회연대주의, 상호부조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채택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단체이면서  
비영리 단체이지만 조합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수 있어야  
구심력을 갖게 된다.**

협동조합의 구성원은 경제적 독립체이며 조합과 밀접 불가분리의 유기적 관계에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의 협동조직체이지만 조합원은 종래의 독자적 생산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경제활동만 조합을 통해서 협동을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동체적인 존재이나 필요한 부분을 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도원칙이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자유단체로서 가입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언제든지 그 목적에 찬성하면 가입할 수 있으나 탈퇴도 자유로워야 한다.

협동조합은 경제단체이다. 협동조합이 영리단체가 아니지만 더욱 자선단체는 아니고 조합원의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는 경제단체이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어야 구심력을 갖게 된다.

협동조합은 인적단체로서 경제적으로 빈약한 사람들

이 조직하는 단체이다. 경제행위도 하지만 협동조합은 인적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인격을 중요시 하게되며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로서 실비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영리기관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경제체계를 유지하고 이로서 생기는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상호부조의 단체로서 전체는 1인을 위해서, 1인은 전체를 위해서 상호부조하며 연대조직을 통해 공공이익의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자주 자조의 단체로서 자주적이고 자조적 방법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국가가 협동조합에 대해 관여하는 범위도 협동조합을 보호 육성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되지않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지역적 단체이다. 협동조합의 성격상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상호부조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 2) 협동조합의 성격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여러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협동조합은 인적단체이면서 경제적 단체이고 경제적 단체이면서도 비영리적 단체이다.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동시에 비자본주의적 요소 즉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성질도 있기 때문에 이율배반

적(二律背反的)인 성격을 동시에 그 자체내에 포함하면서 아무런 모순성을 갖지 않고 있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피해를 받는 소생산자, 소비자, 농민들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인간 즉 조합원의 인격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주식회사는 주식소유자에 의해 구성되기때문에 어떤 장소나 어떤 직업에 종사하여도 상관할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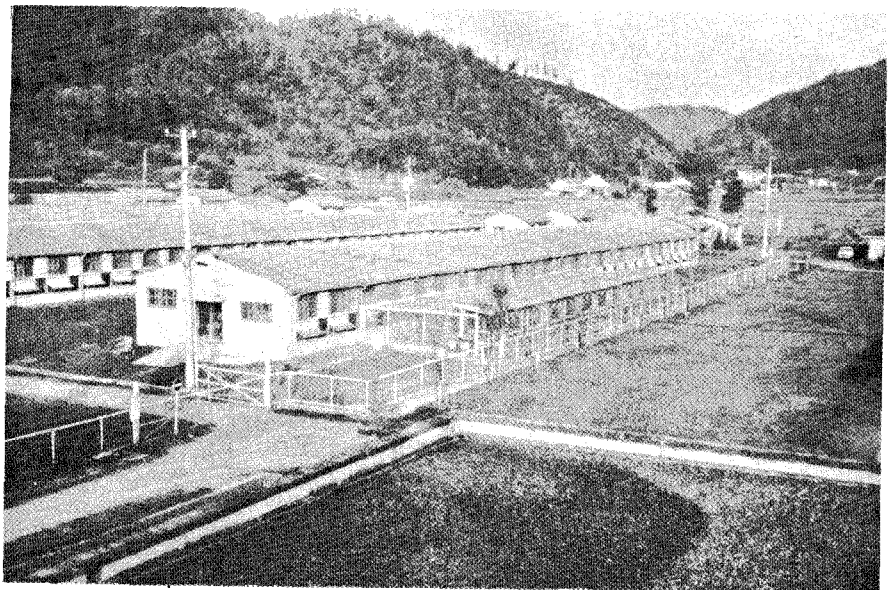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인격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1인1표제나 가입탈퇴의 자유 등 인격 강조의 표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야 조합원으로 부터 구심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경제단체로서 사업을 하는 이상 자본이 있어야하고 특히 현대의 협동조합은 생산, 판매, 구매 등 각종 경제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출자와 자본소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비해 최대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극히 저율의 배당을 하고 이용고에 의해 배당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 요소와 비자본주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적 요소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도 시인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경제의 특질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며 사유재산제도를 존중하는 것이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어떤 형태이든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비자본주의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하고 계급 이익을 위한 투쟁기관이 아니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조직되는 것이다.

협동조합이라는 전체를 위해서 조합원 개인의 자유는 무진장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이익은 전체의 이익을 전제로 하여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이윤획득이 목적이 아니라 이윤의 폐지 내지 합리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합원의 출자금도 제한하고 있으며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체에 속하는 공유재산이다. 협동조합운동이 사회개량적 의미를 갖는 것은 중요한 의미이다.

### 3. 협동조합의 역할

협동조합은 어떤 형태이든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농업협동조합은 비록 그 조직과정이 하향적이었고 비민주적인 사항들이 많았으며 조직구성원도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사업종류가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으나 특이한 것은 농업이 점차 전문화되고 다원화되면서 전문농협의 형태가 점차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의 도시화 근대화되면서 농협의 사업확충에 대한 조합원의 욕구는 영농관련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민복지와 농촌환경개선이 요구되면서 복지후생과 관련된 농협의 관심은 더욱 촉구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의 영농관련사업은 농산물유통과 관련된 각종사업과 영농자재공급사업을 들 수 있으나 점차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농업의 상업화에 따른 농민요구의 다양화에 부응하고 농협사업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하며 농산물유통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주도과 생활관련 사업분야가 더욱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관련사업은 의료건강시설과 일상생활문제의 상담과 지도, 생활용품공급사업의 확대 등이 더욱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을 자연생태계에 위치시키면서 자원에너지, 비용절감에 기초한 농업생산과 유통체계의 일원화,

지역조건에 맞는 적절한 사업의 개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의 확대, 사업실시 수익의 공평한 수혜가 이루어지는데 협동조합이 기여할 것이다.

특히 미래의 농업활동은 철저하고 과학적인 계획에 근거해야되기 때문에 계획수립단계부터 협동조합의 역할은 클 것이다. 즉 협동조합조직에 있어 장래의 변화에 대응한 계획의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시대의 선도자라기 보다는 수동적인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계획수립과정이 보다 특이하였던 것이다. 즉 어떤 계획을 수립할때 협동조합의 원칙과 이상에 잘 조화되게 최선을 다했으며 계획의 작성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과 계획수립과정이 상부에서 뿐만 아니라 하부에서도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농민의 욕구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어지고 있다.

### 4. 맺는말

최근 양계업계에서도 전문조합의 설립을 추진해야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양계산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산업으로서 정착되고 있다. 그것은 양계업이 71년부터 이루어진 수입조절, 양계산물 수요의 증가, 국산계의 보급과 순계수입, 생산조절 등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육규모의 영세성, 가격의 불안정, 유통구조의 취약성, 기술개발등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양계업이 지니는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농가의 힘으로는 제약성이 많기 때문에 조직화된 전문협동조합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양계산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민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양계업을 중심한 전문협동조합이 주류를 이루고 상업적인 기업양계를 주도하면서 국제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경영의 집약화와 질적 충실, 철저한 협동조합 본질에 입각한 조합원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농민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양계산업이 내적으로는 상업화와 기업화로 정착되고 외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같은 농민단체의 건전한 육성으로 자기방어적인 자구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고도산업사회에 대처할 적극적인 방법일 것이다. **양계**